

## 안산의 근로자 건강 파트너, 안산산업보건센터



박종대 센터소장

지하철 4호선 안산역에서 700미터 떨어져 있는 안산산업보건센터를 방문했다. 횡단보도 2군데를 건너야 도달할 수 있다. 가는 중간에 원곡동 '다문화거리'가 있다. 다양한 외국어 간판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날 수 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안산센터는 2001년, 경기지부 안산분소에서 안산산업보건센터로 독립했다. 1999년에 일반·특수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을 받았다. 2011년에는 시화공단에서 현재의 위치, 신길로 1길로 이전했다. 안산센터는 신우프라자 2~5층, 4개 층을 사용하고 있다. 2~3층은 건강진단 공간(안산성모 의원)과 건강진단팀이 자리 잡고 있다. 4층은 환경위생팀과 보건관리팀, 분석실이 있고, 5층은 운영지원팀과 사무국장실이 있다. 안산센터는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다.



백중섭 사무국장

안산센터의 특징을 물어봤다. 강전선 건강진단팀장은 "안산센터는 5대암 검진이 가능한 센터"라고 한다. '5대암'은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암, 유방암이다. 5대암 검진은 위 내시경

건강진단팀





환경위생팀



운영지원팀(왼쪽부터 이강진 부장, 백종섭 국장, 최수연 대리, 이지훈 차장)



검사(위암), 대장 내시경검사(대장암), 간 초음파 검사와 혈청 알파태아 단백질검사(간암), 자궁경부 세포검사(자궁암), 유방 촬영(유방암) 등이다.

기억에 남는 고객을 물어보니, 정문생 환경위생팀장은 CJ제일제당을 꼽았다. 안산센터와의 인연도 있지만, 무엇보다 협회의 '권고사항'을 잘 따라주었다고 한다. 용담로에 위치한 CJ제일제당 안산공장을 방문해 보니 지은 지 40여 년 이상이어서 석면 슬레이트가 많았다고 한다.

석면은 발암물질이라고 설명하고 조심스레 철거를 권고했는데, 흔쾌히 시행해 리모델링했다고 한다. 현재는 청결한 식품회사로 거듭났다. 전문가로서의 뿌듯함이 느껴졌다고 한다.

가까운 곳에 '다문화거리'가 있고, 원곡동 소재 외국인 근로자가 1만 여명이라고 하니, 외국인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안산센터의 활동이 궁금했다. 2000년 초반에는 반원국가산업단지 및 시화국가산업단지(일명 반월공단, 시화공단)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검진할 때, 의사소통이 불편해 손짓발짓하면서 검진했다고 한다. 현재는 외국



강전선 건강진단팀장





보건관리팀



정문생 환경위생팀장

인 근로자를 위한 '건강진단 양식지'가 있어 어느 정도 불편을 해소했다고 한다. 또한 안산센터는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와 공동으로 건강 관리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선정해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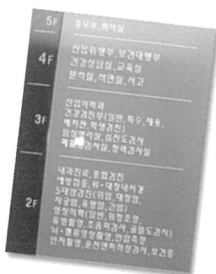
안산지역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뿐 아니라 95%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이다. 그도그럴 것이 반월공단은 1977년 공업지역으로 지정되고 서울 및 경기도에 산재한 중소기업들을 이전해 생긴 것이다. 또한 시화공단은 대규모 염전벌을 메우고 조성한 것이다. 시작부터 열악했다. 열악한 만큼 근로자 건강관리를 활발히 해야 하는 곳이 안산이다.



오영덕 보건관리팀장

오영덕 보건관리팀장은 '안산센터는 안산시와 공동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해마다 안산역에서 산재예방 가두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2014년에는 응급구급함 100여 개를 배포했고 2015년에는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보안경 등 개인보호구 240여 개를 사업장에 지급했다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안산지역, 열악한 사업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까지 보살펴야 하는 협회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안산센터. 2016년에도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원한다.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1길 86 신우프라자 2~5층  
전화 : (031)498-1063-6